

## 제2회 영국 교과서 내 한국관련 기술내용 확대 라운드테이블 Roundtable discussion on UK Secondary Education and Korea

### □ 목적

- 영국 교과서 내 한국 관련 기술 내용 확대의 당위성 확보 및 장단기 전략 수립

### □ 세부 내용

- 일시 : 2019. 11. 26 (화) 오전 11시 ~ 오후 2시
- 장소 : 주영국대한민국 대사관 7층 대회의실
- 참석자 :
  - (우리측) 박은하 대사, 선남국 공사, 김수경 교육원장, 이은정 1등서기관, 정혜라 실무관
  - (상대측) 임소진 교수(진행) 및 연사 7명
    - 임소진 교수(센트럴 랑카셔 대학교 한국학과 교수, 국제 한국학 연구소 부소장)
    - Mr Aaron Wilkes(Oxford University Press 중등 GCSE 역사 교과서 집필 저자, St. James Academy Dudley 역사 교사)
    - Dr Michael Maddison(역사교육과정컨설턴트, Maddison Education Consultancy 원장, 영국역사협회 부회장, 역사 교사, 역사교과서 저자, 평가위원, 감사위원)
    - Mr Richard McFahn(서섹스 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, 역사 교육과정 석사, 역사교육관련 서적 및 논문 저자, 역사 교사 들을 위한 History Resource Cupboard 웹사이트 운영)

- Dr Ed Griffith(센트럴 랑카셔 대학교 Asia Pacific Studies 학과 교수)
- Dr Niki Alsford(센트럴 랑카셔 대학교 Asia Pacific Studies학과 교수, 국제 한국학 연구소 소장)
- 현정임 교수(센트럴 랑카셔 대학교 교수)
- 김규환 사무관(센트럴 랑카셔 대학교 방문 연구원)

## □ 라운드테이블 논의사항

- 영국 교과서 내 한국관련 기술 내용 확대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지난 1차 라운드테이블 논의 사항
  - 영국 내 초중등 학생 및 대학생, 성인에 이르기까지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.
  - 한국어 교육이 영국에서 정착되기 위해, 그리고 한국어 전공자들이 한국어 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GCSE Korean, A-Level Korea 과목 도입이 매우 중요함.
  - 영국 정부 및 Exam Boards의 입장을 살펴보면, 당분간(2025년까지) 학교 교육과정에 변화가 없을 것이며, 아시아 언어(중국어, 일본어)를 비롯한 전반적인 언어 학습에 대한 수요 감소로 미루어 한국어에 대한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함.
  - 우선 다른 교과, 특히 역사 교과에 한국 관련 기술 내용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음. 별도의 주제로 다루어지기는 어려우나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기준, 즉 ‘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세계 역사상 중요한 사건’ 관련, 열거된 예시 주제 중 한국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.

-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많은 교사들이 한국 관련 내용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수업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임.

○ **영국 교과서 내 한국 관련 기술 내용 확대의 당위성 확보**

- 현재의 영국의 교육과정은 영국과 유럽 중심으로,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.
- 영국 교육과정에 한국 관련 내용을 도입하는 것은 한국 정부로서는 당위성을 가지지만 영국 정부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음. 여러 다른 나라들보다 한국이 우선하는 이유를 잘 설득할 수 있어야 함.
- 영국 미디어는 북한 문제에 집중하며 한국의 민주주의적 발전보다 대만의 사례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. 왜 한국이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함.
- 영국의 젊은 세대들이 한국의 문화에 열광하고 있음. 거품이라는 일견도 있지만,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. 교육자로서 한국 문화, 한국어에 대한 큰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젊은 세대에게 한국에 대하여 제대로 가르쳐야 할 교육적 의무가 있음.
- 어린 학생들이 왜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지, 어떤 점을 알고자 하는지 연구해 보아야 함. 다른 나라보다 왜 한국에 더 집중하는 지 이유와 목적을 먼저 알아야 한국관련 기술내용을 확대하는 것이 유의미해짐.
-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한국에 대해 알고 관심을 가지며 어떻게 알아가고 있으며,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설문조사가 필요함.
- 다만 교육자 입장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과 다를 수 있으므로 내용 선정에 학생 의견만을

반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음.

- Key Stage 3(중등7-9학년) 국가교육과정에서 영국역사 및 지역사회의 역사 외 수업주제에 대하여 제시한 기준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‘세계 역사상 그리고 세계 발전과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건’임. 따라서 한국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려면 다른 나라의 역사적 사건들보다 그 중요도 혹은 관련성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.
- 모든 주제는 영국 역사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제로 선정되기 때문에 관련성을 찾기 위해서는 근현대사 위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.

○ [단기 전략] 영국 교과서에 포함 가능한 한국 관련 주제 선정

- 케이스 스터디를 위한 주제 선정이 우선되어야 함. 주제 선정은 ‘한국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영국의 젊은이들이 무엇을 알면 좋을지’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.
- 역사 뿐 아니라 지리, 경제, 비즈니스, 사회, 종교, 문화, 문학,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합한 주제를 찾을 수 있으며 해당 주제가 영국 교육과정의 어느 과목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적합할지 고려해야 함.
- 냉전 시대 이후의 좀 더 모던한 주제들의 예시로 한국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음. (기적적인 경제 발전, 민주주의 달성, 인권 문제 등) 많은 학생들이 현대 한국에 대해서 배우고자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함.
- 중등 Key Stage 3의 음악 교육과정에 보면 ‘연주하거나 듣는 음악과 그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본다.’ 라는 수업 목표가 있음. K-pop을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K-music에 대해 아는 것을 활용하고 알고 싶은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

어줄 수 있음.

○ [장기전략] 수업 자료 개발 및 교사 교육 프로그램 구성

- 교사가 수업 주제를 선택하려면 먼저 명확한 이유와 목적을 이해해야 하며, 교과서, 온라인 자료 등의 충분한 케이스 스터디 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함.
- 온라인 자료는 액세스가 쉽고 업데이트가 쉬므로 선호되는 미디어나 플랫폼이 비싸고 개발 및 유지하는 인력이 필요함.
- 교과서를 필요로 하는 교사들을 위해 동시에 개발해야 함.
- 교과서 및 콘텐츠 개발은 케이스 스터디의 주제에 따라 누구한테 맡길지 결정하게 될 것이며 어떤 케이스 스터디든지 국가교육과정과 구체적으로 연관되어야 함.
- 교사의 지식이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음. 각 과목 중등 교사를 초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교사를 먼저 교육하여 풍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컨퍼런스나 워크숍 등의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.

□ 제안 사항

○ 전문 인력 확보

- 교과서 및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역사, 경제, 지리, 사회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확보
- 교과서 저자들을 컨택하여 여러 예시 주제들을 제시하고 영국 교육과정 속에서 해당 주제가 각 과목에 어떻게 적합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 자문 요청

- 예시 주제를 선정하여 소규모 워크숍 진행
- Dr Maddison이 소속되어 있는 History Association 등 여러 교과 협회와의 네트워크 구축
- 영국 학생 대상 설문 조사 실시
  - 한국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학습동기 증명
  - 과학적으로 매우 힘있고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될 것
  - 적어도 1,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1,000개의 데이터 필요
  - 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하여야 신뢰성을 인정받으며, 펀드 마련이 시급함